

광주·전남 1인당 평균 재산 11억3천만원

●총선 후보자 재산 분석

1위 양부남 83억...정형호 83억·안도걸 43억 정준호 -4억7천만원 재산 신고액 가장 적어

4·10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 지역구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72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814억6천558만8천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3천146만6천원이다.

후보들의 재산을 광주·전남별로 나눠보면 광주가 평균 13억2천549만원, 전남은 평균 9억3천744만2천원으로 광주가 전남보다 많았다.

광주·전남 후보자 72명 가운데 광주 서구

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가 83억8천500만6천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새로운미래 정형호 후보(83억2천11만4천원·광산갑), 민주당 안도걸 후보(43억8천135만4천원·동남을) 순이었다.

전남 1위는 32억4천537만6천원을 신고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갑)였으며 광주·전남 전체로는 5위였다. 광주·전남 4위는 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로 38억2천252만2천원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광주·전남상·하위 5명 재산신고액

순위	성명	신고액	정당	지역구
1	양부남	83억8천500만6천원	민주	서구을
2	정형호	83억2천11만4천원	새미래	광산갑
3	안도걸	43억8천135만4천원	민주	동남을
4	김정현	38억2천252만2천원	국힘	광산갑
5	주철현	32억4천537만6천원	민주	여수갑
68	김원갑	42만3천원	개혁신당	북구을
69	유현주	-1천410만원	진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70	김유성	-4천108만4천원	국힘	담양·함평·영광·장성
71	최대집	-2억7천340만9천원	소나무	목포
72	정준호	-4억7천929만4천원	민주	북구갑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정준호 후보는 4억7천929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고액 기준으로는 광주·전남 전체 후보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었다.

목포에서 출마한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 2억7천340만9천원,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4천108만4천원, 순천에 출마한 진보당 유현주 후보도 1천410만원의 재산

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0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천411억5천462만3천원, 1인당 평균 27억7천70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2천147만5천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62명(8.9%)이었고, 10억~50억원 310명(44.3%), 5억~10억원 126명(18%), 1억~5억원 130명(18.6%), 1억원 미만 71명(10.2%)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1천446억6천748만7천원)다. 당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 후보는 1994년 창업한 조명업체를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고졸 창업가 출신이다. 김 후보에 이은 재산 규모 2~4위도

두 국민의힘 후보다. 경기 분당성남갑 안철수 후보(1천401억3천548만5천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후보(562억7천883만원), 서울 성북을 이상규 후보(459억178만7천원) 순이다.

전체 5위이자 더불어민주당 1위 자산가는 서울 강남갑 김태형 후보(403억2천722만2천원)다. 과거 한국해양대 교수로 일한 김 후보는 현재는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후보를 5명 이상 낸 정당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힘(40억24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18억9천537만6천원), 새로운미래(16억789만4천원), 개혁신당(13억7천200만7천원), 자유통일당(5억885만원), 녹색정의당(3억848만9천원), 진보당(2억4천910만1천원)이 뒤를 이었다. /김진수기자

광주 30%·전남 44% '전과'...음주운전·사기·방화도

광주 7명·전남 4명 '병역 미필'

광주 후보자의 30%, 전남 후보자의 44%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에서는 남성 출마자 30명 중 7명이, 전남에선 33명 중 4명이 병역 미필자로 집계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 후보자 36명 중 30%인 11명이 전과가 있었다.

진보당 강승철·정희성·전주연·윤민호(북구을) 후보, 국민의힘 김윤(서구을), 소나무당 송영길(서구갑) 후보는 집회나 시위관련한 전과 이력을 갖고 있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북구을)는 사기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진보당 김주엽(북구갑) 후보는 지방공무원법위반,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 기록이 있었다.

국민의힘 강현구(동남갑) 후보와 무소속 장경수(북구갑) 후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분 이력이 있고, 개혁신당 최현수(서구을) 후보는 권리행사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남 10개 선거구 후보 36명 중 16명(44%)이 전과가 있었다.



유세차량 제작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사흘 앞둔 24일 광주 광산구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 /김애리기자

재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배임, 음주운전과 상해 등 5건으로 전남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이외 국민의힘 박봉근(해남·완도·진도) 후보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진보당 최국진(목포) 후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각각 4건의 전과가 있었다.

4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3선의 국민의힘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는 방송법위반, 2선의 무소속 이윤석

(목포) 후보는 뇌물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전과 기록이 있었다.

녹색정의당 박명기(목포) 후보와 국민의힘 김희택(여수을)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를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형주(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는 방화, 민주당 조계원(여수을) 후보는 상법 위반, 국민의힘 윤선웅(목포) 후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병역 미필의 경우 민주당 정진욱 후보(동남갑)는 입영 후 이직 반월상 연

관판 절제술로 귀가 조처됐다. 진보당 정희성 후보(광산갑)는 수해탈출증,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광산을)는 근시, 무소속 장경수 후보(북구갑)는 폐결핵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서구갑의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서구를 국민의힘 김윤 후보, 북구갑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는 수형으로 소집 면제됐다.

여수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 나주·화순 민주당 신정훈·진보당 안주홍 후보는 수형, 영암·무안·신안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는 장기 대기 소집 면제됐다. /박선강기자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51.7cm'

정당 38개 등록 분류기 무용지물...완전 수개표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cm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20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cm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 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cm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cm였다. 당시 분류기는 21개 정당의 34.9cm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



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를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